

2018 산업곤충 관계자 간담회

2018. 6. 15.(금)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



2018년
6월 넷째주

2018 산업곤충 관계자 간담회 성황

VOL. 190

주간 전남농업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June

주간 날씨정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6~29일,
7월 1일에 비가 오겠음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업기술원, 전남귀농 시
맞춤형 영농모델 개발·제공

정책동향

전남도, 전국 첫 농민 참여
영농형 태양광 추진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7월, 무더위를 이기는 여름
농촌여행코스 6선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6~29일, 7월 1일에 비가 오겠음
- ▶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8~21도, 최고기온 : 24~28도)보다 전반에는 높겠고, 후반에는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8~19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쌀 재배 및 가격전망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8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2

- ▶ 한국 유자차, 중국 편의점에서도 인기 짱!

- ▶ 전남농업기술원, 사료용 벼 제초제 선택 주의 당부
-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귀농 시 맞춤형 영농모델 개발·제공
- ▶ 2018 산업곤충 관계자 간담회 성황
- ▶ 아리수 사과나무 영양 진단, 간편하게 하세요!
- ▶ 논에서 콩·수수 재배할 땐 물길 잘 내는 것이 중요!
- ▶ 다가오는 장마철, 비 피해 없이 지나려면?
- ▶ 저장 풀사료 곰팡이 오염 주의
- ▶ 이른 더위 가축 관리 주의

- ▶ 전남도, 전국 첫 농민 참여 영농형 태양광 추진
- ▶ 염소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지급

- ▶ 순천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적극 당부
- ▶ 광양시, 수박 수정벌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큰 보탬
- ▶ 화순군, 과수 돌발해충 방제 발 벗고 나섰다
- ▶ 장흥군, 조사료 신품종 종자 생산 연구 박차
- ▶ 해남군,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마케팅 육성
- ▶ 영암군, 애플수박 첫 수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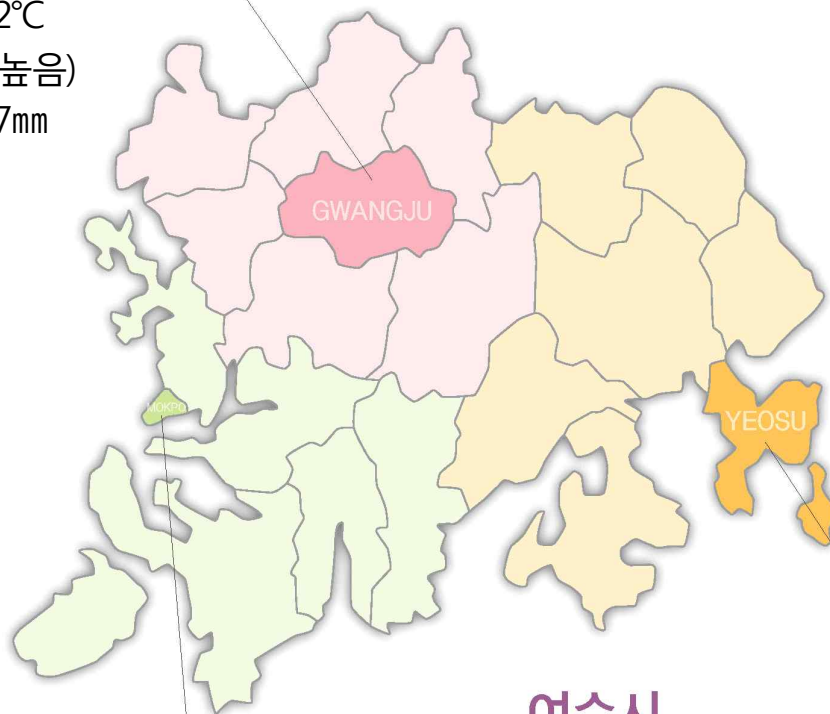
- ▶ 일본, 개정식품위생법안 통과로 HACCP 도입 의무화
- ▶ 미국에서 주목받는 낙타우유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6. 22. 시카고 선물거래소)

- ▶ 전남도, 폭염 대비 온열질환 감시체계 강화
- ▶ 7월, 무더위를 이기는 여름 농촌여행코스 6선
-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3.4℃
(평년대비 2.3℃ 높음)
- 최고기온 : 27.5℃
(평년대비 1.7℃ 높음)
- 최저기온 : 20.2℃
(평년대비 1.9℃ 높음)
- 강 수 량 : 10.7mm



목포시

- 평균기온 : 22.5℃
(평년대비 2.2℃ 높음)
- 최고기온 : 25.2℃
(평년대비 1.9℃ 높음)
- 최저기온 : 19.9℃
(평년대비 1.8℃ 높음)
- 강 수 량 : 9.9mm

여수시

- 평균기온 : 21.8℃
(평년대비 2.1℃ 높음)
- 최고기온 : 24.5℃
(평년대비 1.4℃ 높음)
- 최저기온 : 19.9℃
(평년대비 2.1℃ 높음)
- 강 수 량 : 11.7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산물벼 인도에도 민간재고 부족 여전



2018년 벼 재배면적 전년 대비 3만 6천ha 감소 전망



▶ 쌀 재배 및 가격전망

○ 최소한의 물량 정부 구매 시, 2017년산 단경기 가격 80kg 기준 17만4천 원 ~ 17만7천 원 예상

-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량을 정부가 구매할 경우, 단경기 가격은 현 수준보다 소폭 상승한 80kg 기준 17만4천 원~17만7천 원으로 17만 원대 수준 유지 전망

○ 2018년산 벼 재배의향면적 71만9천 ha

- 농업관측본부 논벼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8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4.7%(3만6천 ha) 감소한 71만9천 ha로 4월 관측치(73만 4천 ha)보다 1만5천 ha 더 감소

○ 금년 쌀 과잉공급 가능성 존재

- 정부의 시장격리가 없는 것을 가정한다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순매입량이 줄어 2018년 신곡시장공급량은 313만8천 톤으로 전년대비 4.1% 늘어날 것으로 전망
- 2018년 신곡예상수요량은 301만6천 톤~309만7천 톤으로 신곡시장 공급량 보다 약 4만 톤에서 12만 톤 내외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기상이변 등 변수가 없는 한, 금년에도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 가능성 존재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8. 6. 25.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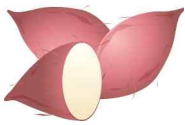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20kg	44,720	44,660	↑	4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568	31,800	39,533	↑	13.1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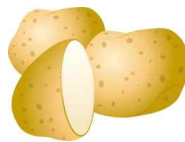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35kg	181,600	181,600	↑	6.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0,560	170,550	154,517	↑	17.5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10kg	43,400	44,400	↑	5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040	28,700	30,337	↑	43.1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20kg	26,200	28,000	↓	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240	27,150	22,327	↑	17.3

채소류

배추(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10kg	6,400	6,000	↑	15.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80	5,550	5,652	↑	13.2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8kg	5,200	4,800	↑	8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440	2,820	4,240	↑	22.6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100개	32,333	34,667	↑	1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200	28,167	31,634	↑	2.2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20개	11,400	13,400	-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120	11,400	12,687	↓	10.1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60kg	1,200,000	1,200,000	↑ 103.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50,000	590,250	725,417	↑ 65.4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10kg	31,400	36,0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9,560	37,750	36,167	↓ 13.2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20kg	145,000	145,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5,000	-	-	-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20kg	13,400	14,800	↓ 3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560	21,050	16,783	↓ 20.2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20kg	38,600	36,600	↑ 25.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800	30,750	31,307	↑ 23.3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1kg	1,340	1,360	↑ 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84	1,310	1,452	↓ 7.7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5kg	15,600	18,000	↑ 16.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20	13,400	15,967	↓ 2.3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1개	16,600	15,600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160	16,700	14,243	↑ 16.5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10kg	20,200	18,400	↑ 15.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320	17,500	15,530	↑ 30.1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5kg	14,000	13,800	↓ 1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600	16,350	11,853	↑ 18.1

과일류

사과(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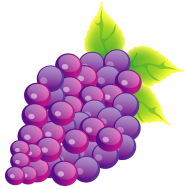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10kg	39,400	39,800	↑	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960	38,950	43,330	↓	9.1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15kg	36,600	37,800	↓	3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480	52,250	51,950	↓	29.5

거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2kg	15,800	-	-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	-	-	-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30kg	498,600	498,600	↓	4.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000	521,000	535,333	↓	6.9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2kg	13,600	13,800	↑	5.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720	12,850	14,315	↓	5.0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2kg	6,800	7,400	↓	1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800	7,800	7,947	↓	14.4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100g	7,839	7,936	↑	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084	7,810	6,996	↑	12.0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1kg	4,722	4,732	↓	1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25	5,559	5,861	↓	19.4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100g	2,092	1,946	↓	9.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66	2,322	2,234	↓	6.4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30개	4,011	3,948	↓	49.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290	7,981	6,112	↓	34.4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5)	1주일전 (6/18)	전년대비	
1L	2,525	2,525	↓	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19	2,527	2,530	↓	0.2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6. 25. 기준 / 단위: 천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591	5,591	5,330	-	↑ 4.9
거세	7,118	6,685	6,530	↑ 6.5	↑ 9.0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51	3,259	3,105	↓ 0.2	↑ 4.7
수	4,118	4,146	3,917	↓ 0.7	↑ 5.1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62	3,517	2,66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4	↑ 26.0

젖소수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66	284	17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6.3	↑ 52.0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59	448	47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5	↓ 2.8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157	1,125	1,66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8	↓ 30.6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598	677	2,09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1.7	↓ 71.5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933	1,900	2,66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7	↓ 27.5



▶ 한국 유자차, 중국 편의점에서도 인기 짱!

- 농식품부·aT, 중국 광둥성 C-Store(喜市多) 395개점 유자차 및 음료 판촉 -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對중국 전략품목인 유자차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난 5월 30일(수)부터 6월 26일(화)까지 28일간 중국 편의점 C-Store(喜市多) 395개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유자차 수출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2017년 15백만 달러로 對중국 수출이 28% 가량 감소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사드 완화 분위기와 중국 음료 프랜차이즈의 유자차 메뉴화 등 적극적인 신규 유통망 개척 등에 힘입어 5월말 누계 수출액이 7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 농식품부와 aT는 기존 대형유통매장 위주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음료·외식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의 새로운 유통 플랫폼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판촉행사는 중국 광둥성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의점 C-Store 395개 매장에 유자차 제품을 최초로 입점 시키고 바이어와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 내 카페코너가 있는 208개 매장에서는 테이크아웃으로 유자차 음료를 판매하며 새로운 유형의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 판촉행사 이후 매일 평균적으로 유자차 제품 400여개와 유자차 음료 2,000잔 이상이 판매되며 유자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편의점 측에서는 유자차 음료의 입점 메뉴 확정과 한국농식품 전용 매대를 설치하여 약 100종류 이상의 한국 식품을 신규로 입점·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전남농업기술원, 사료용 벼 제초제 선택 주의 당부

- 사료용 벼에 피해 성분이 없는 제초제를 사용해야 한다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금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따라 논에서 사료용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제초제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사료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벼 품종은 영우, 목양 등인데 대부분 통일계 품종으로 메소트리온이나 벤조비사이클론, 테퓨릴트리온 성분이 함유된 제초제를 사용할 경우 약해가 우려되고 있다.
- 이들 성분이 함유된 제초제는피를 제외한 대부분의 저항성잡초를 손쉽게 방제할 수 있고 현재 120종이 시판되고 있다.
-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작용기작은 식물생장에 필수적인 4-hydroxy phenylpyruvate dioxygenase(HPPD)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광합성에서 전자전달에 관여하는 플라스토퀴논의 생합성을 저해한다. 결국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생합성이 억제되고 엽록소 붕괴가 일어나 백화현상을 보임으로써 잡초나 감수성 벼의 생장을 저해하고 심하면 고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들 성분에 의한 약해는 벼 생태형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일반계 자포니카 품종에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통일계 품종, 찰벼, 유색미, 사료용 벼, 특수 품종 등에서 주로 약해가 보고되고 있고 증상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안규남 연구사는 “사료용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제초제를 구입하기 전에 약해에 관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료용 벼에 피해 성분이 없는 제초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귀농 시 맞춤형 영농모델 개발·제공

- 서울거주 베이비붐 남성 전남으로 귀농 8.4% 희망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거주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귀농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베이비붐 세대 남성 2명중 1명은 귀농의향(48.5%)이 있으며 전남지역 희망자는 8.4%로 3위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6.8%, 강원도 18.8%, 전남 8.4%, 충남 6.2% 순으로 나타났으며, 귀농지역을 선택한 이유로는 연고가 있고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으로 나타났다.
- 귀농하여 재배하고 싶은 작목으로는 고추, 마늘, 배추, 감자, 고구마 순였으며, 이유로는 노동력이 적게 들고 재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귀농 전에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귀농지원 정책자금 75.9%, 재배기술 70.4%, 농촌체험 및 관광 21.1% 순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 베이비붐 세대 남자가 직장 은퇴 후 월별로 수령하는 연금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22.6%, 151만 원에서 200만 원이 17.6%, 200만 원 이상은 12.2%로 나타났다. 귀농 예정자들이 월 생활비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27.8%, 151만 원에서 200만 원 38.8%, 200만 원 이상은 22.1%로 나타났다.
- 전남농기원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붐 세대의 연금크기, 생활비 및 귀농 희망 지역별로 맞춤형 영농모델을 개발하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군별 향우회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귀농 상담회를 개최하여 전남지역으로 귀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2018 산업곤충 관계자 간담회 상황

- 고품질 곤충 생산과 유통 활성화 논의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곤충잠업연구소는 지난 15일 도내 곤충 사육농가, 가공유통 전문가, 산업곤충학 및 식품학 관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2018 산업곤충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곤충산업 최근 동향 및 정보 △2019 국제농업박람회 제2차 산업곤충 심포지엄 전시 참가방법 협의 △사육농가 애로사항 발굴 △Y마트, 비타민하우스, 투지팜 등 전문가가 보는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곤충잠업연구소와 사육농가 간 기술업무 협약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농가와 가공업체 식·약용 곤충 가공 제품 전시 홍보 등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자유토론에서는 고품질 생산 및 가공 유통을 위한 사료와 보조사료 일괄 구입, 가공시설 설치, 분기별 검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조기 구입 지원, 곤충 종류별 전문성의 필요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사육농가와 관련 학과 교수, 가공 유통업체, 연구소, 행정기관 등이 모두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아리수 사과나무 영양 진단, 간편하게 하세요!

- 간이 엽록소 측정기로 질소 영양 상태 확인... 비파괴 · 실시간 관리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간이 엽록소 측정기로 간편하게 우리 품종 아리수 사과나무의 질소 영양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 사과나무의 자람새는 질소의 영양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절한 양분 관리를 위해서는 생육기의 질소 분석이 중요하다.
- 질소 양분을 많이 주는 과원의 나무는 자람새가 강하지만, 수확기에 색이 잘 안 드는 등 열매의 품질이 떨어진다. 반면, 질소를 알맞게 주면 품질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 질소 분석 시, 잎의 무기성분을 분석하는 기존의 이화학적 방법을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 간이 엽록소 측정기(SPAD-502 Minolta Co.) 분석 기술을 이용하면 잎을 따지 않고 비파괴적 방법으로 현장에서 바로 나무의 질소 양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나무 생육기 중간 시기인 6월 말, 1년생 나무의 새로 나온 가지 중 가운데 부위쯤 나온 잎에 측정기를 대면 자동으로 엽록소 지수가 측정된다.
- 아리수 나무에서는 엽록소지수가 53~58 사이이면 가장 좋다. 이때 질소 함량은 2.03% 가량이다.
- 질소 양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질소 비료를 보충하고, 많다면 생육 후기까지 질소 비료의 효과가 있는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간이 엽록소 측정기로 질소 함량을 분석하는 기술은 비파괴적이며,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나무 자람새를 확인 가능할 수 있어 빅데이터를 수집해 앞으로 과수원의 스마트팜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논에서 콩·수수 재배할 땐 물길 잘 내는 것이 중요!

- 물 잘 빠지면 습해도 줄어... 배수로·이랑 만드는 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논에서 콩과 수수를 재배할 때 습해를 막을 수 있는 배수 관리법을 소개했다. 물 관리를 잘 못하면 콩은 시들어 말라 죽고, 수수는 여뿔이 불량해 수확이 어렵다.
- 먼저, 논은 여름철 집중 호우에 침수 우려가 없고 비가 그친 다음 24시간 내에 물이 빠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씨를 뿌리기 전에 굴삭기 등으로 논 가장자리에 깊이 50~80cm, 폭 30cm의 배수로를 설치해 물이 빠져나갈 길을 만든다.
- 논 중간에는 10~15m 간격으로 십(十) 자 또는 정(井) 자로 물길을 낸다. 이랑 사이에는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물이 들어오는 용수로와 빠지는 배수로를 연결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한다.
- 콩은 등근두둑 1줄이나 평두둑 2줄로 만드는데, 2줄 재배는 씨 뿌리는 곳과 고랑 사이를 15~20cm로 해 뿌리가 잘 자라게 한다. 수수의 이랑은 15~20cm 높인의 높은 두둑을 1줄로 만들어야 좋다.
-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는 24시간 안에 고랑 사이의 물을 빼고 앞에 남은 흙을 깨끗한 물로 씻어낸 다음 요소 엽면 시비를 한다.
- 논 콩의 경우 0.5~1.0% 요소액(10~20g/물 20리터)을 뿌린다.
- 논 재배에 알맞은 품종으로는 콩알이 굵은 장류·두부용 대원, 태광, 다수성 품종인 대찬, 진풍, 밥밑용인 청자3호 등이 있다. 수수는 찰수수인 남풍찰, 메수수인 동안메 등이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정태욱 과장은 “밭작물을 논에서 재배할 때는 습해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알맞은 품종을 고르는 방법과 배수 관리, 자동 물 관리 방법을 연구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다가오는 장마철, 비 피해 없이 지나려면?

- 농작물·시설물 피해 예방법과 대책 알아두고 날씨 정보 자주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6월 하순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급속적인 날씨 변화로 농작물이나 시설물 파손이 발생하기 쉽다.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농작물 관리 대책을 잘 따르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벼 -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의 잡초를 없애고, 배수 시설을 정비한다. 이른 모내기로 새끼치기(분얼)가 시작된 벼는 강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논물을 말려 뿌리에 활력을 촉진한다.
- 논 - 의 농작물이 일부 또는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잦다면, 질소비료의 양을 20~30%가량 줄이고, 칼륨질 비료는 20~30%가량 더 주면 병해충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밭작물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습해를 예방한다. 비가 오기 전에 주요 병해충을 예방하는 약제를 뿌려두고, 비가 많이 내려도 쓰러지지 않도록 줄지주를 설치한다.
- 과수원 - 나무 밑에 목초 등을 가꾸는 초생재배를 하는 과수원은 비 오기 전 풀을 베어 물빠짐을 좋게 한다. 경사지 또는 새로 조성한 과수원은 짚 또는 산야초, 비닐 등을 덮어 폭우에 겉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 바람에 찢어질 우려가 있는 가지는 묶어주고 늘어진 가지는 받침대를 댄다.
- 축사 - 축사에 물이 차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정비한다. 또, 축사 내 전기 시설을 점검해 감전 사고를 예방한다. 가축 먹이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 비에 젖지 않도록 한다.
- 농업시설물 - 양수기, 수중펌프 등 수방자재를 확보해 두고, 비닐을 교체할 예정인 시설하우스는 미리 치워 피해를 예방한다. 뜯어진 비닐은 보수하고, 환기창 등 여닫이를 점검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저장 풀사료 곰팡이 오염 주의

- 첨가제 접종해 제조, 포장 찢어진 부위는 바로 밀봉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올봄 풀사료를 수확할 시기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저장 풀사료를 소에게 주기 전에 곰팡이 오염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압축 포장 담근먹이(곤포 사일리지)로 만들 때도 수분 함량이 높은 풀사료는 곰팡이에 오염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 특히, 맥류 사료 작물에 많이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는 대사 산물인 데옥시니발레놀, 니발레놀, 제랄레논 등의 독소를 생성한다.
- 붉은곰팡이에 오염된 담근먹이를 반추(되새김) 가축이 먹으면 성장 지연, 우유 생산량 감소, 반추위 소화율 저하, 송아지 설사, 번식 능력 저하 등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곰팡이 오염을 막으려면 1~2일 정도 풀사료를 말려 담근먹이를 만드는 것이 좋다. 또, 곰팡이 억제용 담근먹이 첨가제를 접종할 수도 있다.
- 만들 때 뾰족한 돌이나 나무에 의해 포장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되, 찢어진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사용한다. 그러나 먹여서 소진하기 힘들다면 찢어진 부위를 즉시 비닐 테이프로 완전하게 싸매도록 한다.
- 저장 중에 담근먹이 모양이 변형되지 않도록 2단 이하로 쌓는다.
- 아울러, 곰팡이가 생긴 담근먹이는 색에 상관없이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면 안 된다.
- 해롭지 않은 곰팡이도 있지만, 독소를 생산하는 것이 많고 발생 모양이나 분포 양상을 눈으로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사람도 곰팡이 포자를 흡입하면 폐렴이나 천식, 피부병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나 장화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작업 후에는 깨끗이 씻는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이른 더위 가축 관리 주의

- 비타민과 광물질 보충... 송풍 팬·안개 분무로 체온 낮춰야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이른 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가축과 축사 관리를 당부했다.
-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배합사료와 풀사료의 급여 비율을 7:3으로 조절한다. 풀사료는 5cm로 짧게 썰되, 벣짚보다는 질이 좋은 풀사료가 좋다.
- 물을 먹는 양이 늘기 때문에 물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한다.
- 땀이나 침을 흘리면 칼륨과 나트륨, 비타민 등 광물질이 손실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4~7% 더 영양을 공급한다.
- 송풍 팬과 안개 분무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늘막을 설치하면 소의 피부 온도를 낮춰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 돼지는 몸집보다 폐 용량이 적고, 땀샘이 퇴화해 체온 조절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더 신경 써야 한다.
- 사료 먹는 양의 감소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이 주는 횟수를 늘린다. 같은 양을 주더라도 두 차례나 서너 차례에 나눠 먹이는 경우 먹는 양을 10~15% 늘릴 수 있다. 또, 사료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주는 것이 좋다.
- 물을 공급하는 선이나 물통의 내부 온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단열 시설을 설치한다. 돼지우리 천장에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지붕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 닭은 체온이 41도(℃)로 높고 깃털로 덮인 데다, 땀샘도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며, 폐사로도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 효과적인 닭장 환기 방법은 풍속을 높여 체감 온도를 낮추는 터널식 환기와 냉각판(쿨링패드), 자동 물뿌리개 설치 등이다.
- 또한, 알맞은 사육 밀도를 유지하고 냉각수를 공급하며, 출하할 때 수송 밀도, 시간, 환경에 신경 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전남도, 전국 첫 농민 참여 영농형 태양광 추진

- 한국남동발전(주)와 함께 14억 들여 7개 농촌마을에 700kW 시설 -

-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병행하는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7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700kW 규모로 추진된다.
- 전라남도과 한국남동발전(주)이 협의해 한국남동발전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서 14억 원을 지원받아 7개 마을에 100kW씩을 시설한다.
- 전라남도는 6월 말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은 오는 7월 현장조사 및 주민설명회, 8월 사업 확정 및 협약 체결, 9월 인허가 및 마을조합 설립, 10월 시공업체 선정 및 사업 추진, 12월 사업 완료 후 마을 기부 절차로 진행된다.
- 선정 조건은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농어촌 마을, 농지 700평 이상으로 벼농사가 가능한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다.
- 한국남동발전에서 시설 준공 후 마을조합에 기부하면, 마을조합이 자체 운영하며 수익 전액을 주민 복지비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농가 소득 증대, 귀농인 인구 유입, 공급 과잉인 쌀 문제 해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일석사조 효과가 기대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염소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 전남도, 7월 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

-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염소를 포함키로 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2017년 염소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다.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은 2018년에 염소를 사육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한 농가다.
- 지원을 바라는 염소 사육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8~9월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하게 된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한도는 농업인 3천500만 원, 법인 5천만 원으로, 마리당 1천62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지원 한도 없이 마리당 15만9천 원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순천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적극 당부

- 오는 29일 가입 만료에 따라 가입 서둘러야... -

- 순천시는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오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모내기를 마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18일 당부했다.
- 올해는 유난히 한파와 이상저온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여름에는 태풍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인한 벼의 경작불능, 수확량 감소 등 피해를 보상해준다.
-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할인과 병충해 보장도 기존 4가지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외에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2종을 추가해 모두 6종의 벼 병충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 시 관계자는 “올해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해 가입농가의 보험료 자부담 20% 중 약 3%를 추가 지원해 준다, 오는 29일까지 모내기를 마친 농가들은 잊지 말고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순천시

▶ 광양시, 수박 수정별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큰 보탬

-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수박 생산으로 새로운 소득창출 이끌어 내 -

- 광양시는 진월면 섬진강변 일원에서 재배하는 수박농가에 수정별 공급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는 2015년 수박연구회 15농가를 대상으로 10ha에서 200통을 시범적으로 수정별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103농가 133.9ha, 1,641통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 시는 이번 사업으로 인력수정에 비해 80% 이상의 노동력과 생산비 50%를 절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수박의 상품성을 크게 높이는 등 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농가에서 재배된 수박은 6월 초부터 출하되고 있으며, 복수박은 6월 11일 광양동부농협 송월지점을 통해 농협계통 마트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다.
- 특히, 복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껍질이 얇아 깎아 먹을 수도 있고 크기가 작아서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며, 냉장고 보관도 용이해 최근 핵가족과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선호를 받고 있다.

* 출처 : 광양시



화순군, 과수 돌발해충 방제 발 벗고 나섰다

- 방제약제 지원사업 추진, 29일까지 신청 접수 -

- 군은 14일 갈색날개매미충 등 과수 돌발해충에 대한 농가 방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신청문의 : 농업기술센터 379-5422)
- 사업신청은 관내 0.1ha이상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복숭아·블루베리 영농조합 법인 등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과종 농가는 소속된 단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체에 소속이 안 된 개별농가나 기타 과종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이번에 실시되는 과수 돌발해충 방제약제 지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3월 사업비 1억 원을 추경으로 확보하여 준비한 사업으로 농가 자부담금이 없으며, 화순에 거주하는 과수재배 농가면 누구나 농가별 1과종, 과종별 0.1~1.0ha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이와 관련, 군은 최종 사업신청 면적이 확정되면 오는 7월초 과종별 대표 농업인, 관련부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약제선정 심의회를 통해 과종과 수확기에 영향 없이 살포할 수 있는 유기농 방제약제 1종을 선정해 8~9월 중 성충 활동기에 배부하여 공동방제토록 할 계획이다.

* 출처 : 화순군



장흥군, 조사료 신품종 종자 생산 연구 박차

- 장흥군 축산사업소(소장 문정걸)는 이탈리아라이그라스 그린팜2 종자를 채종해 관내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번 그린팜2 종자는 관산읍에 위치한 장흥한우 육종단지 조사료포장인 『목초 신품종 육성 및 이용촉진 시험 연구포』에서 채종했다.
- 국내육성 사료작물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신품종인 그린팜2는 수확시기가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으로 일반 조사료 보다 빠르다.
- 조단백질(DCP) 함량이 많아 사료가치가 높고 기호성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번에 채종한 종자는 관산읍 농안리에 있는 사료작물 정선시설을 활용해 종자로 보급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
- 또한 축산사업소는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으로 삼산간척지에 국내산 종자 생산체계 구축 연구를 목적으로 사료용 벼 도입 후 간척지 논에 IRG 채종 기술 개발 시험 연구포 1ha를 조성하여 시험에 들어갔다.
- 시험 연구포에서는 사료용 벼 재배 후, 올 10월에는 국내육성 품종인 코원어리를 파종하여 국내산 사료작물 종자생산 기지 조성을 위한 시험연구포로 활용 할 계획이다.

* 출처 : 장흥군



▶ 해남군,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마케팅 육성

- 원예산업종합계획 5개년 계획 수립 2022년까지 695억 원 투입 -

- 해남군은 식생활 소비패턴 변화로 과일·채소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등 원예산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원예산업 종합계획은 그동안 산지유통계획, 과수발전계획, 주산지 발작물 계획 등으로 분산 추진되던 원예산업을 생산과 유통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일원화해 나가게 된다.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 추진되며, 해남군은 695억 원을 투자해 농업분야 역점사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 특히 생산과 유통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지역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농가를 지역조합 및 농업법인 등의 산지조직으로 육성해 공동선별·공동출하, 통합마케팅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해남군에는 통합 마케팅 조직에는 농협 11개소와 법인 9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배추, 마늘, 양파, 고구마 등 4개 전략품목과 밤호박, 고추, 무화과, 단감, 참다래 등 5개 육성품목이 선정됐다.
- 해남군은 전국 생산량 1위인 가을·겨울배추를 비롯해 마늘, 양파, 고추, 참깨 등 채소류 6개 품목이 주산지로 지정돼 있으며 채소와 특용, 약용, 과수, 버섯, 화훼 등 원예특작분야의 지난해 총소득액이 2660여억 원에 달하는 등 농어업 소득 1조 원 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해남군

▶ 영암군, 애플수박 첫 수확

- 신소득 작목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

- 영암군은 올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애플수박을 선정하여 관내 8농가에 1ha 규모로 확대 보급 중에 있다. 금년 첫 수확은 6월 13일 서호면 이영호 농가에서 시작됐으며 6월 하순까지 차례로 수확 될 예정이다
- 이번 수확한 애플수박은 당도 11-12°Brix 정도로 달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다. 기존수박은 크기가 크고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단점이 있는데,
- 애플수박은 1.2kg내외로 소인가구에 적당한 크기로 과피가 얇아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으며 음식쓰레기 배출량도 현저히 적은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 첫 수확한 애플수박은 영암축협(하나로마트)나 지역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통당 6,000원, 선물용(2개입/박스) 15,000원으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 출처 : 영암군





▶ 일본, 개정식품위생법안 통과로 HACCP 도입 의무화

- 식품 제조업체의 위생규격인 HACCP을 의무화 하는 개정식품위생법 법안이 7일 오후 일본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주요 내용은 HACCP의 의무화, 일본지자체의 인허가 제도의 정리, 기기에 사용하는 수지의 포지티브리스트화 등이다.
-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업체에 대한 HACCP 의무화를 진행할 예정이나 의무화의 대상 업종, 규모 등은 후생성령(政省令)으로 규정하게 된다.
- 또한, 이번 식품위생법안의 개정을 통해 식중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지자체 등의 위생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광역협의회를 설치, 정보 공유를 도모할 예정이다.
- 금번 일본국내 식품업체에 대한 HACCP의무화 제도 도입과 함께 향후 수입식품에도 HACCP을 의무화 시킬 예정으로 한국 수출 업체들도 주의가 필요시 되고 있다.
- 현재, 통관원활화를 위해 대일 수출식품에 대한 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등록 이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당 업체가 HACCP인증을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시사점은 일본은 앞으로 HACCP에 의한 위생관리가 제도화 될 예정이나, 품목에 따라 대상 상품군이 지정 될 예정이므로 현시점에 바로 HACCP증명서를 제출 할 필요는 없다.
-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일련의 식중독 사건으로 소비자와 정부 모두 민감한 상태인 만큼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은 분명하다. 원활한 수출을 위해 HACCP 취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미국에서 주목받는 낙타우유

- 미국에서 낙타우유가 주목받고 있다.
- 낙타에서 짜낸 낙타유로 만든 낙타우유는 중동에서 흔히 마시는 영양만점 음료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통해 상품화 및 판매가 시작됐으며 매년 관심과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낙타우유는 일반 우유보다 지방 함량이 낮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적은 대신 비타민 E, 비타민 B, 아연 등의 영양성분은 더욱 풍부하다.
- 낙타우유 제조사들은 낙타우유가 특히 젖당이 거의 없으며 체내 흡수율이 뛰어나고, 낙타우유 한 컵으로 비타민 B1 하루권장량의 70%를, 칼슘의 30%를 섭취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낙타유 제조사는 Desert Farms로 낙타 원유 생유와 원유를 발효시킨 우유(Kefir), 살균 처리된 우유(Pasteurized) 등의 유제품은 물론, 낙타유로 만든 파우더와 비누, 화장품 등을 제조해 판매 중이다. 낙타우유는 낙타 사육 농장에서 직접 생산돼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방식으로 판매된다.
- 낙타우유의 판매가격은 16온즈 한 병에 18달러 선. 일반우유보다 월등히 비싸다. 일반 젖소의 하루 우유 생산량이 16리터 가량이지만, 낙타는 그보다 절반도 못 미치는 5~6리터에 그치기 때문이다.
-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생소함에 따른 거부감으로 낙타우유의 인기 급성장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식물기반 단백질이 주목받고, 대안 유제품이 급성장 하는 최근 트렌드에 비추어봤을 때, 낙타우유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 이 밖에도 워싱턴포스트는 낙타우유의 맛이 일반우유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짭짤한 맛이 있다며, 초콜릿칩 쿠키와 곁들였을 때 단짠의 조화(sweet-and-salty combination)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 한편 미국 내 우유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스페셜티 우유 및 우유 대용품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민텔(Mintel)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우유 판매량은 지난 2012년부터 약 15% 감소했고, 매년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다.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유기농과 일반 우유를 포함한 전체 우유 판매량은 41억 파운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1.1% 감소했다.
- 반면 콩 및 견과류로 만든 식물성 유사 유제품의 판매는 2012년 이후 무려 61%가 증가했다. 2022년까지 우유 대용품의 전체 판매량은 약 2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 시사점은 완두콩, 햄프씨드, 마카다미아우유 등 식물성 우유는 물론 염소우유 등 스페셜티 우유까지 우유시장이 다채로워지고 있다. 미국시장에 높은 영양학적 효능 뿐 아니라 맛과 새로움을 갖춘 우유 및 유제품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출처 : www.desertfarms.com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6. 22.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수확량 감소 전망으로 상승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4%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저가매수세와 러시아의 어두운 작황 전망으로 인해 상승했다. 올해 러시아 밀 수확량 전망은 기상악화로 겨울밀과 봄밀 모두 피해를 입어 전년보다 21.5% 감소한 6,740만 톤이 될 전망이다. 중국 또한 같은 이유로 작황이 좋지 않아 수입이 증가 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전했다. 미 농무부의 주간 밀 수출량은 46만1,600톤으로 무역 기대치와 부합하게 집계되었다고 전했다.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0.8%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기후악화와 밀 선물의 강세의 영향을 받았다. 밀 선물 강세의 영향과 함께 달러 약세도 함께 나타나면서 옥수수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 기후상황 또한 폭우로 인해 아이오와, 미네소타, 남부 다코타 일부지역 옥수수 재배지가 범람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하지만 아직 옥수수 벨트 지역 대부분의 날씨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미 농무부는 구곡 옥수수의 수출이 예상치 보다 낮은 16만5,900톤, 신곡 옥수수는 기대치와 부합하는 33만 9,700톤에 달한다고 전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0%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계속되는 미-중 무역분쟁 우려로 다시금 하락했다. 무역긴장이 고조되는 한편 대두 최대수입국인 중국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속에 장을 마감했다. 미 중서부 전역의 광범위한 비도 수확량 전망을 높일 것이 예상되어 낙폭을 더했다. 미 농무부는 구곡과 신곡 모두 무역 기대치에 부합하게 집계되었다고 전했다. 구곡 대두 수출량은 30만1,700톤 신곡은 22만7,600톤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전남도, 폭염 대비 온열질환 감시체계 강화

- 장시간 야외활동 자제 등 건강수칙행동요령 준수 당부 -

- 전라남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포함 총 70개소에서 폭염 대비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군에서는 6월 말까지 온열질환 예방 교육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폭염으로 인한 전남지역 온열질환자는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10명(전국 90명)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하가 5명, 65세 이상자가 5명이다. 고령자가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논밭 작업 등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평소 건강수칙을 지키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폭염주의보, 경보 등이 발령되면 위험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입을 필요가 있다.
-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며,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심하면 의료기관을 찾아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
- 환자에게 수분 보충은 도움이 되나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 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토록 해야 한다.

* 출처 :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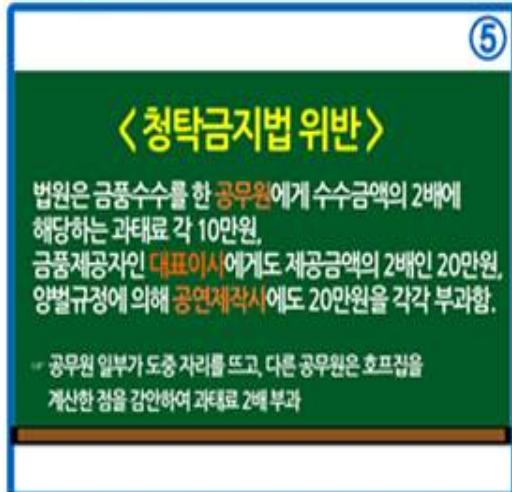
7월, 무더위를 이기는 여름 농촌여행코스 6선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7월에 가기 좋은 농촌지역 여행코스를 추천하는 『여름 농촌여행코스 6선』을 선정했다.
- 이번 농촌여행코스는 여름의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여행지로 구성되어 지역별 6개의 코스로 구성됐다.
-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웰촌, 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601)330-2593 Fax. 061)335-4199

VOL. 190

